

텃밭 찾은 정청래·힘지 방문 박찬대 “내란 척결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17일전남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청문회'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전남서 간담회…“RE100 기지 선정 등 호남 발전 의제 추진” 박찬대, 안동서 발걸음…“일하는 당대표 필요…내란 청문회 열겠다”

민주 전당대회 내일 총청권 경선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는 17일 각각 호남과 경북을 찾아 표발을 다졌다.
정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을 든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이재명·김민석·박찬대·정청래를 수거하려고 했던 내란 세력과 협치가 가능할까”라면서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람을 죽이려 했던 세력의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다. 노상원 수첩에 나왔 듯이 그것이 만약에 실행되고 성공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과 웃으면서 먼저 협치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선거 공천 절차에 대해서는 “억울한 것

은 없도록 하겠다”며 “그래야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전남 주요 현안인 RE100 사업과 관련, 그는 “RE100 시대에 맞는 환경에너지 생산기지는 전남에 두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전남에 대학병원 수준의 의대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당 대표가 되면 호남발전 특위에 주요한 의제로 올려 지역민들에게 신속히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날부터 영남권 지역 투표를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의 ‘협치’로 불리는 경북 지역을 찾았다.
부모의 고향인 안동에서 당원들과 만난 박 후보는 “늘 마음속에 ‘나는 영남의 후손’이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영남에서 지지받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며 한 표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열심히 일하는 정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보고 싶은 마음은 영남이나 호남이나 다 같을 것”이라면서 “다음 민주당 대표는 싸우는 당 대표여서는 곤란하다. 대통령처럼, 총리처럼 열심히 일하는 당 대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가 되면 ‘제2의 5공 청문회’인 내란 청문회를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5공 청문회가 그랬듯 12·3 내란 청문회 역시 불러야 할 자들은 많고 파헤치고 드러내야 할 숨겨진 진실도 많다. 10적, 20적, 어쩌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윤호석 혁신위원장이 일부 내란 연루자들에게 거취 표명을 요구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장동혁, 송언석, 윤상현, 나경원만으로는 내란의 진실에 다가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청문회는 복수가 아니라,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약속”이라며 “민주주의의 안전장치이며, 공화국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거짓 해명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퇴해야”

민주 논평… ‘독임제 건의’ 여부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에 ‘들통’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5년도 제25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통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대통령에게 독임제를 건의하지 않았다’라던 해명이 뻔뻔한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진숙 위원장이 감히 국민을 속이려 했더니 가가 막힌다. 본인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부끄럽지도 않는가”라면서 “국민 앞에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는 꼴이 법정에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판박이다”고 강조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방송의

공익성을 위해 여야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 기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로 운영하자는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은, 왜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순위가 윤석열 정권에서 60위권까지 추락했는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일말의 반성도 없이 대통령께 맞서며 독임제를 주장한 것도 모자라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니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면서 “이진숙 위원장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거짓말과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임기 보장 같은 헛소리를 중단하고 당장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유원식 의장 “하반기 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헌절 경축사…개헌 필요성 강조

유원식 국회의장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이제 우리 헌법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룬 시간”이라며 “그러나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변화는 시시각각 물밀듯이 닥쳐오는데 헌법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

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수준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에 대해선 “여러 상황을 두루 살피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내외 경제여건과 향후 정치 일정, 인수 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안정화되는 시점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개정안은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윤희숙 “당 지도부에 ‘다구리’ 당했다”

국힘 혁신위원장…“당에 책임지는 사람 없어 국민 답답할 것”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7일 혁신안에 대한 당 지도부의 반응을 “다구리(몰매를 뜻하는 은어)”라고 표현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지도부 회의인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한 뒤 혁신안에 대한 비대위의 반응이 어땠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비공개 때 얘기인 만큼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다”고 답했다.
당헌·당규에 계엄·탄핵에 대한 사죄 명시, 최고 위 폐지 등 지도부 개편,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의원의 거취 표명 요구 등 자신이 제시한 혁신안에 대해 비대위 참석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몰아세웠다는데 취지로 해석된다.
윤 위원장은 “우리 당에 책임지는 분이 없다는 게 국민 눈에는 너무나 답답할 것”이라며 “아름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발이 없으면 혁신안이라고 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해오던 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당이 새로워진다는 느낌을 주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혁신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위원장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개호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 보장”

법안 발의… 24일 함평서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17일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에서 5년 단위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연간 240만원 이상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하되,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자 자격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등 세부적인 사항도 함께 담겨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농업, 농어촌 회생을 위한 국

가지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대책이 있었지만 근본적 위기를 극복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활력을 잃어 가는 우리 농어촌이 사랑받는 보의 참여로서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하고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법안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각 지역 농어민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해당 법 통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4일에 함평에서 농어촌기본소득전남연합회의 간담회를 통해 발의된 법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